

주말 한국학교 크레딧 인정여부 꼭 확인을

UC 지원서 최종 점검

UC 지원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UC지원을 위해 최종 점검을 해보자. 요즘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을 정리해 봤다. UC 지원을 위해서는 일단 UC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먼저 만들자.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how-to-apply/apply-online/index.html>에 접속하여 Apply Now를 클릭하고 Create a New Account를 클릭해서 만들면 된다.

1. 법적인 이름과 학교에서 쓴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원자의 이름은 법적인 이름을 써야 한다. 이 뜻은 소셜카드나 여권에 있는 이름을 쓰라는 말이다. 소셜카드와 여권의 이름은 같다. 많은 한인 학생들이 영어이름과 한국 이름을 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인 이름은 한국 이름만 되어 있거나 영어 이름만 되어 있기도 하고 일부는 한·영 이름을 같이 법적인 이름으로 올려놓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 이름이 줄리 혜정 김이다. 여권에는 Hye Jung Kim으로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Julie Hye Jung Kim으로 부른다. 또 모든 표준고사 시험은 Julie Kim으로 썼다. 입학원서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매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한다. 이 학생의 경우 원서에 Hye Jung (Julie) Kim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표준고사를 본 칼리지 보드에 연락하여 이름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2. 주말 한국어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도 크레딧을 받나요?
많은 한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주말 한국어반에서 배운 한국어일지라도 자신이 다니는 고교에서 크레딧을 받아주었다면 ‘High School Course & Grade’란에 기입해야 한다. 하지만 주말 한국어반에서 크레딧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Course other than a-g’란에 기입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의 한국어 클래스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케이스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영어 외에 제 2외국어를 수준급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UC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들의 성적을 UC 성적으로 바꾼 후 1차 심사를 하고 통과한 지원자들의 과외활동과 에세이 등을 심사한다. 성적이 UC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애써 준비한 과외활동과 에세이를 심사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음 심사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소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그 또한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3. UC를 꼭 가고 싶은데 자격이 되나요?
지원 자격과 준비목록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UC 지원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는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 경

우. a-g과목 영역을 이수하되 GPA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타주 학생은 3.4 이상이다. 또한 각 과목별 12학년까지 C학점 이하를 받으면 안 된다. UC 지원서 작성을 위한 준비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전 학년 학교 성적표, 시니어 프로파일, 이메일 주소, 법적인 이름, 주소, 가족의 수입,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현재, 전공과목, 소셜시큐



대입원서 가운데 에세이를 통해서 차별화하는 것이 UC 상위권 대학입학에 유리하다. 사진은 UC버클리 캠퍼스. <뉴욕타임스>

가주학생 a~g 과목 영어 GPA 3.0 점점 SAT 여러번 응시결과 최고점수를 기입

리터 넘버, 전화번호 등이다. 그리고 SAT I과 II, ACT·AP 점수를 모두 준비해 둔다.
온라인 작성을 시작하면 계정을 만든 후 기본 정보를 기록한다. UC가 제공하는 장학금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 장학금 수여자 후보가 될 수 있다. 최고 16개 항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

4. SAT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UC는 SAT II 테스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지만 일부 전공에 따라 수 학이나 과학의 서브젝트 테스트 점수가 합격 후 수업 신청 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SAT와 ACT 등 시험 결과는 여러 번 응시했다라도 UC는 한 번 본 테스트의 점수 가운데서 전체점수 중 최고 점수를 평가에 반영한다. 점수는 학생이 지원한

모든 UC계열 캠퍼스가 공유하기 때문에 지원한 캠퍼스 중 한 곳에만 보내면 된다.
모든 작성이 끝나고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자신이 기록한 이메일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대학에서 오는 이메일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에세이 작성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은 무방하지만 표절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각 대학은 에세이가 온라인이나 타인의 출판물 등에서 발췌하여 표절되었는지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에세이 작성 팁

어떤 경우가 되었든 지원서 작성은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대입 지원서 작성을 앞둔 시니어들을 위하여 갈수록 중요해지는 에세이 작성에 대하여 얘기해 보자.
◆가능한 한 일찍부터 에세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쓸 것인지 구상 생각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자.
◆퍼스널 에세이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에세이는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지원서 검토를 거친 후 추가로 알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지원서에 들어갈 내용들 예를 들면 학교성적 특별활동 수상실적 일한 경험 가족사항 부모님의 재정상태도 필요하니 세금보고서 등도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에세이를 쓰기 시작할 때 반드시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서 작성하도록 하라. 지원서에 로그인해서 에세이를 써서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자신의 우수성을 늘어놓거나 수상경력 등을 나열해 나가는 형식의 에세이는 설득력이 없다.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와 생각들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고 의미가 부여된 형식의 에세이를 작성하라.
◆스펠링을 확인함은 기본이며 문법이 맞는지 그리고 에세이의 구성이 잘 짜였는지 확인하라. 잘 작성한 에세이는 읽기 쉽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여러 번 교정을 거듭해야 한다.
◆에세이는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생각을 반영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지만 가족 또는 선생님이나 컨설턴트로부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자료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컴퓨터에 작성한 에세이가 완성되면 저장한 후 지원서의 에세이를 올리는 공간에서 붙여넣기를 한다. 붙여넣기를 한 다음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교정을 본다.
UC는 지원서에서 두 개의 에세이와 추가 코멘트(additional comment)를 요구한다. 두 개의

에세이 합해서 글자 수는 1,000단어 미만이어야 한다. 첫 번째 에세이는 ‘지원자가 어떤 배경(예를 들어 가족, 이웃, 학교)을 가졌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했는지 설명하라’이다.
두 번째 에세이는 지원자에게 소중한 경험이나 자질, 재능, 성취 또는 기여를 통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지원자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설명하라’이다.
에세이 작성을 시작해 30분이 지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컴퓨터에 작성한 후 지원서 에세이 칸에 옮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에세이에 이어 추가 코멘트도 있다. 이것은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UC계열 중 명문에 속하는 UCLA·버클리·샌디에고 등은 고득점 학생들이 몰려 매년 학력 수준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 에세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 성적이나 SAT 점수로 비교하기 힘들 경우 에세이와 과외활동을 통해 원하는 지원자를 선택하게 된다.



지나 김
시니어 디렉터
어드미션 마스터즈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9700년의 역사
민족정기

- 힘찬 내공, 명석한 두뇌
- 암, 고혈압
- 당뇨 예방 및 극복
- 극치적 건강

국선도

온라인 국선도
www.uSundo.com

~한국 고유의 정통 단전호흡
~전국 14개 대학 교과목

“... 저역시 틈날때마다 국선도를 해오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닦는데 정말 좋은 심신 수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선도가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 새누리당 대표시 국선도기념식 축하문

BoA_1105BoA
엄마따라 국선도하고 오는길... 사람은 숨만 잘 쉬어도 잠도 잘오고 피로도 근육경직도 풀리는구나.. 저처럼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적극추천합니다... :)
7월 25일

안류스타 가수 보아의 트위터 국선도 소개

- LA 본원 (버몬+월서) (213)272-6798
- 토렌스 (로미타+웨스턴) (213)272-6798
- 플러튼 (하버+커먼웰스) (714)944-1234
- 세리토스, 라팔마 (한남체인 맞은편).... (562)547-9315